

논술시험 문제지

인문계열 1회차

2012년 11월 18일 (제 1회차)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감독 확인	
----------	--

◆ 유의사항 ◆

1. 시험시간은 120분입니다.
2. 필기구는 배부한 검정색 볼펜이나 개인 연필 가운데 한가지 필기구로만 계속 사용합니다.
(수정액, 수정테이프, 색갈펜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3. 답안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는 경우 '0'점 처리됩니다.
4. 수정할 사항은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수정합니다.
5. 문제는 총 2문제이고, 답안지는 총 2장입니다.
6. 각 문제별로 지정된 답안지의 정해진 위치에 답안을 작성합니다.
7. 연습용지는 문제지 제일 뒷장의 여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문제지(연습지 포함)를 찢거나 분리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합니다.
9. 감독위원이 시험시작을 알리기 전까지는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10. 시험 시작 후 문제지의 문항수를 확인합니다.
11.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답안지 모두 감독위원에게 제출합니다.



공 통 문 항

<가> ‘세상 모든 사람의 지혜를 모두 합하면 볼테르의 지혜보다 낫다’는 속설도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을 군중으로 이해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의 지혜를 모두 합해도 볼테르의 지혜보다 못하다’고 해야 훨씬 더 정확할 것이다. 고립된 개인들은 갖지 못하고 오직 군중만이 획득할 수 있는 이런 고유한 특성들을 결정하는 여러 원인이 있다. 첫째, 개인이 군중에 포함되면 단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수가 많다는 생각만으로도 자신이 무소불위의 힘을 지녔다는 감정을 품을 수 있다. 그런 무소불위의 힘은 그런 개인이 고립된 상태에서는 강제로 억누를 수밖에 없던 본능에 복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둘째, 군중의 모든 감정과 행동은 감염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 감염력은 심지어 개인으로 하여금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익마저 기꺼이 희생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하다. 셋째, 군중에 합세한 개인들이 드러내는 고유한 특성들을 결정짓는 피압시성이다. 최면에 걸린 사람의 모든 감정과 생각이 최면술사가 결정한 방향으로 집중되듯, 군중에 속한 개인은 자신의 행동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다.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그의 어떤 자질들은 파괴됨과 동시에 또 다른 자질들은 대단히 고양될지도 모른다. 암시에 걸린 사람은 저항할 수 없는 충동에 휩싸여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충동은 최면에 걸린 사람보다도 군중 사이에서 더욱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군중을 형성한 개인들 모두가 동일하게 걸린 암시는 상호작용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위력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그런 암시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개성을 소유한 개인들도 일단 군중에 포함되면 그런 암시에 저항하여 싸우기는 매우 힘들다.

<나> 대중은 반드시 정치적 사안에 따라 움직이거나 반정부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벗어나 여러 방향으로 범람하기 시작할 때, 그 범람이 직무와 소속, 이름을 지우며 하나의 흐름이 될 때, 그것은 목적이나 이유, 방향이 무엇이든 모두 대중이다. 이는 반드시 숫자가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대중을 정의해 주는 것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이해관계, 수의 다수성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이탈의 벡터(vector,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양)이다. 개인적 수준에서도 대중이 되는 현상을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탈하려는 벡터에 의해 움직일 때, 그는 대중이 된다. 이러한 이탈의 성분이 집합적인 양상으로 진행되며 일정한 수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감응이 발생하여 전염되기 시작할 때, 그리하여 소속이나 자리에서 이탈한 것들이 모여 하나의 집합적인 움직임을 만들기 시작할 때, 대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춰진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대중이란 모든 차이가 지워진 무차별적 집합체라 해도 좋다. 그들은 모방이나 전염의 형태로 하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하며, 현행적 활동을 통해 구성되는 그런 공동성을 반복하여 다시 모인다. 물론 ‘하나처럼’ 움직이고 ‘하나처럼’ 행동하지만, 그 ‘하나’란 그것을 구성하는 상이한 성분들이 모여서 ‘하나처럼’ 작동하는 양상을 지칭한다. 이처럼 이탈의 벡터들이 모여 형성하는 흐름인 대중은 주어진 자리, 주어진 질서의 ‘외부’다. 치안의 외부, 질서의 외부, 체제의 외부, 주어진 삶의 방식의 외부, 그것은 모든 질서, 모든 체제의 외부다. 물의 흐름이 범람하는 것은 애초에 정해진 방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흐름은 처음부터 항상 이미 모든 방향으로 흐른다. 이런 점에서 흐름은 모든 질서의 절대적 외부다. 이와 동일한 의미에서 대중은 모든 체제의 절대적 외부이다. 대중의 흐름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 혹은 분리하여 주어진 자리에 고정함으로써 흐름 자체를 제거하는 것, 그것이 통치나 치안이 대중을 대상으로 삼을 때 겨냥하는 바이다. 대중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면, 범람도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

<다> 나는 무의식중에 앞에 보이는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전신으로부터 알지 못할 힘이 솟구쳐 나와서 근육이 불뚝불뚝 일어서고 머리에 피가 몰려서 눈앞이 아뜩해 왔다. …(중략)… 저 위선과 기만의 음성들. 레코드판처럼 똑같이 반복되었던 찬양의 소리, 속삭임 소리, 신음 소리, 불평과 불만의 소리는 일차 깨뜨려질 까닭이 있었을 것이었다. 사람들은 동물이나 내는 기괴한 탄성을 지르고 있었다. 그들은 눈앞에 닥친 무질서에 환장해 버려서, 마치 사회와 인습과 생활규범을 몽땅 망각한 것 같았다. 그들은

기괴한 소리를 뱉으며 물건들을 부수고 있는 것이었다. …(중략)… 사람들은 이러한 파괴에서 묘한 쾌감조차 느끼고 있는 것이었으나, 반면에 붕괴되고 있는 저 쾩음에 대하여서는 어떤 본능적인 공포를 자극 받았다. 그들은 공포를 느낄수록 더욱 집착하고 있는지 모른다. 어떤 절망 같은 것, 이 세계가 이것으로 끝나 버릴지도 모른다는 아득한 허탈감 속에 너무나도 깊이 빨려 들어가 있었다. …(중략)… 아마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불만스러워할 때 막연히 느끼는 그러한 방심상태일는지도 모른다.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무질서에서의 해방 상태. 이런 본능이야말로 최루탄을 맞으면서도 애써 진행시켜 갔고 대열을 만들어 갔던 데모의 다른 한쪽 면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데모의 바깥쪽에는 법률적인 것, 도덕적인 것, 종교적인 것, 심지어는 신화적인 것이 이를 지켜 주고 있을 것이나, 데모의 그 안쪽에는 이런 도취, 이런 공동 무의식이 잠재되어 있을 것이었다. 오류에 빠진 질서를 파괴하여, 인간을 속박시키던 것들을 풀어 버리고, 구차한 사회생활의 규범과 말 못할 슬픔과 부정부패에 대한 울분을 훌훌 털구어 버리고 나서, 하나의 당당한 무질서상태를 만드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조만간에 극장을 뭉땅 태우고 말 것이었다. 여기저기서 어느덧 불길은 심상치 않은 세력으로 변져 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흥분은 더욱 가세되어 있었다. …(중략)… 바로 그날 4월 26일은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날이었으며 20세기로 들어온 이래 한국에 있어서 가장 긴 하루 중의 하나였다. …(중략)… 우리는 나이를 먹어갔으며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한순간의 흥분을 너무 과대평가하여 기억하는 것의 무의미함’을 어느덧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그리하여 우리가 힘들여 끌어올렸던 그 무질서의 위대한 형식이 역사성 속의 미아처럼 다만 한순간의 고립에 불과하고 말았음을 깨달았을 때에는 어느덧 저 기성의 제복을 걸쳐 입고 있음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그날 밤에 우리가 저질렀던 그 놀라운 긴장감의 파괴가 시시한 것이거나 앓았는가 하는 부당한 생각조차 가져다 줄 때가 많은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나의 사적인 느낌으로 완강히 부인해두는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마치 진실을 엿보는 듯한 느낌으로.

1. <가>, <나>에 제시된 ‘대중’에 대한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그림 2>를 활용하여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에서 서술된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를 분석하시오. (1,000±100자)

1. 실험 방법

- ① 7명으로 구성된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장의 카드를 보여준다.
- ② <그림 1>과 같이 <카드 1>에는 기준선이, <카드 2>에는 세 개의 비교선이 그려져 있다.
- ③ 세 개의 비교선 가운데 두 개는 기준선과 그 길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 ④ 실험 참가자들에게 <카드 1>의 기준선과 같은 길이의 선을 <카드 2>에서 골라 차례대로 번호를 말하게 한다.
- ⑤ 실험 참가자 중 6명은 사전에 협조요청을 받은 공모자들이고, 나머지 한 명은 피실험자이다.
- ⑥ 피실험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말한다.

2. 실험 절차

앞의 방법에 따라 다음 실험을 순서대로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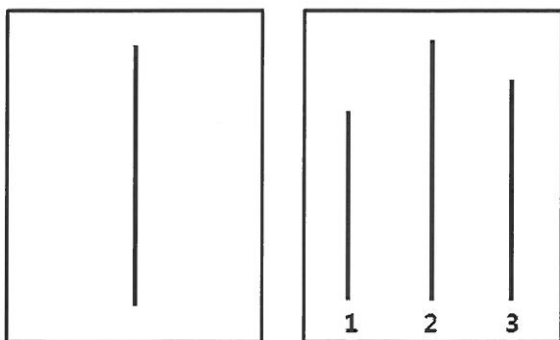
실험 1. 실험 전 6명의 공모자들에게 모두 오답 1번을 말하도록 한다.

실험 2. 실험 전 6명의 공모자들 중 한 명에게 정답을 말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오답 1번을 말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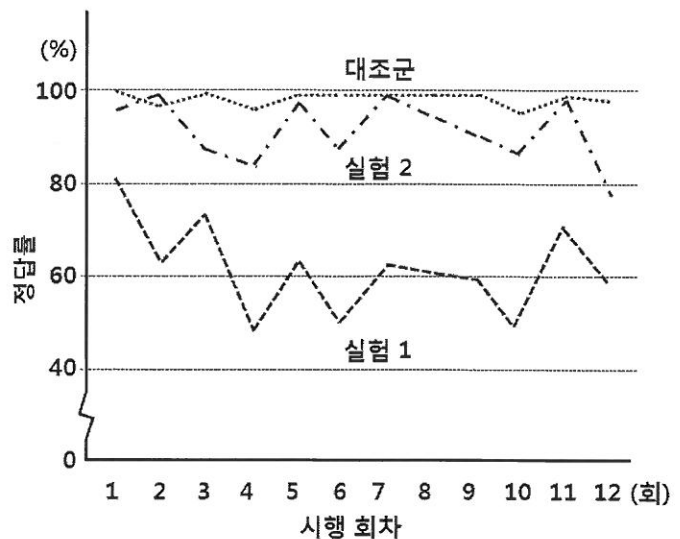
1회 차당 공모자를 제외한 순수 피실험자의 수는 100명이다.

3. 실험 결과

이러한 실험을 12회에 걸쳐 시행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참고로, ‘대조군’은 사전 공모자 없이 실험한 경우이다.



<그림 1>



<그림 2>

계 열 문 항

<가> 우리가 1066년에 헤이스팅스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 관심을 두고 알고 하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역사가들이 그것을 주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카이사르가 루비콘이라는 저 작은 강을 건넌 것이 역사의 사실이 된 것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역사가가 결정한 일이지만,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수도 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이 루비콘 강을 건넌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거나 차를 타고 30분 전에 이 건물에 도착했다는 사실은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사실과 똑같이 과거에 관한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아마도 그것을 무시할 것이다. 역사가들은 필연적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딱딱한 속알맹이가 객관적으로 역사가의 해석과는 독립하여 존재한다는 믿음은 뿌리 뽑기 어려운 오류이다.

과거에 관한 단순한 사실이 역사의 사실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1850년 스톨리브리지 웨이크스에서 싸구려 물건을 파는 한 노점상인이 사소한 언쟁 끝에 성난 군중의 발에 차여 살해되었다. 그것은 다분히 고의적이었다. 이 또한 역사적 사실인가? 1년 전만 하더라도 나는 서슴없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 사건은 어느 목격자에 의해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비망록 속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어떤 역사가에 의해서 언급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으로 판단되리라고는 결코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1년 전 키트슨 클라크 박사(1900-1975. 영국의 역사가)가 옥스퍼드 대학교 강의에서 이것을 언급함으로써 다른 연구자의 논문이나 책에 실려 미래에는 확고한 역사적 사실이 될지도 모른다. 이와는 정반대로 아무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클라크 박사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관한 비역사적 사실이라는 연옥에 빠져들어 갈 것이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박사의 인용을 지지하는 명제나 해석을 다른 역사가들이 타당하며 중요하다고 인정해주는나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 사실로서 그것이 지니는 지위는 해석의 문제에 좌우될 것이다. 이 해석이라는 요소는 모든 역사적 사실에 개입한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비록 사실에 기초해도 엄격히 말하면 결코 진실 그것이 아니라 널리 승인된 일련의 판단들이다.

<나> 중국인들은 이미지(또는 언어들)가 갖고 있는 반복 기능을 이용해 또 다른 이미지를 추가로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한다. 그 이미지는 사진작가라 해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말끔하게 묘사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진이어야 한다. 이는 사진의 이미지와 사진을 찍는 작업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얼마나 허약한가를 보여준다.

사이먼 레이즈는 자신의 저서 『중국의 그림자(Chinese Shadows)』에서 1960년대 중반 마오쩌둥 사상에 부합되는 인민상(人民像)을 강요하기 위해 개최했던 ‘레이핑 따르기 운동’이라는 대대적인 대중 집회에 대해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오로지 마오쩌둥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신격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레이핑은 20세의 나이로 사소한 사건 때문에 사망한 신출내기 병사에 지나지 않았다. 여러 대도시에서 레이핑을 추모하는 사진 전시회가 개최됐다. 전시회에는 ‘길을 건너는 노파를 도와주는 레이핑’, ‘남모르게 동료의 세탁을 해 주는 레이핑’, ‘점심 도시락을 잊고 가져오지 못한 동료에게 도시락을 주는 레이핑’ 등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다. 당시 무명병사에 불과했던 그의 소박한 생활이 어떻게 사진작가들에게 그토록 다양하게 사진에 담길 수 있었을까를 궁금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중국에서는 진실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란 곧 사람들이 보기에 유익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다> 국제박물관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에서는 박물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박물관은 인간 환경의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하여 전시라는 행위를 통해 사회의 발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교육과 과학에 이바지하는 비영리적이고 공공적인 기관이다.’ 그러므로 박물관은 인류에 의해 생산된 과거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미래에 전승하여 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사회교육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의 역사와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려 했던 르네상스 인본주의자들은 고대 미술품을 수집하고 학문을 열정적으로 탐구하였다. 이후 계몽시대를 거쳐 자연

과학의 연구를 위해 역사적이고 전지구적인 자연물들이 수집되었다. 근대국가의 형성과 함께 이러한 개인의 소장품은 제도화되어 시민에게 단순히 보물을 보여주는 창고가 아니라 공공 '교육'기관이 되었다.

한편 제국박물관들은 이국적인 식민지의 문화와 예술품을 수집하고 전시하여 문화를 이용해 자신의 제국주의적인 욕망을 정당화하였다. 표본과 박제, 미술품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던 박물관은 현재 열린 대중교육 서비스기관으로서 전시와 전시품의 이해와 해석을 통해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보고, 배우며, 이해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고 생각하게 한다.

최근 박물관은 시간적으로는 선사시대에서부터 20세기까지 확대되었고, 인간의 활동 영역에서는 과학과 기술공학에서부터 정치·군사 분야는 물론이고 예술과 디자인 그리고 '대중문화'까지 포괄하고 있다. 그리하여 박물관은 과거와 현재의 '중요한 인물들'과 '중요한 순간들', 즉 시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전개과정까지도 형상화하려고 한다. 또한 상류층 엘리트의 삶과 문화뿐만 아니라 농민과 하층계급의 경험까지도 '민주적' 방식으로 '국가적 유산'에 편입시킨다.

대도시의 커다란 국립박물관뿐만 아니라 소도시와 지역의 작은 박물관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각양각색의 가옥이나 유적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의 생가 등이 교외 곳곳에 복원되거나 세워져 관람자들이 역사를 사실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그 중 일부는 전통적인 박물관의 양식을 따랐지만, 어떤 것들은 훨씬 '직접적인', 마치 '손에 잡힐 듯한' 구체적 체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 유행하는 체험박물관은 관람자의 개인적, 사회적, 공간적 경험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관람자에게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박물관의 노력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 '왜' 수집하고 전시하는지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전제로 한다.

2. <가>와 <다>에서 역사에 대한 공통된 논지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나>와 <다>에 나타난 '전시'의 의미를 비교하시오. (1,000±100자)

연 습 지